



대형마트
식자재 수급 불안에
물량확보 총력전
L1



Life

삼양식품
제품 내재화
현지화 전략 박차
L2



“정비소 틀 깨고, 슈퍼카 경험하는 ‘문화공간’ 만들었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소닉모터스 박정희 대표

“소닉모터스는 차가 없어도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자동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정비소를 단순한 기술의 공간이 아닌 차량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소닉모터스 대표는 회사의 정체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차량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의 시간과 신뢰, 취향을 섬세하게 다루는 ‘자동차 경험’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지난 2016년 소닉모터스 영업·마케팅 부문으로 입사한 뒤 브랜드 전략과 기획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이후 운영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현재는 소닉모터스를 이끄는 대표직을 맡고 있다.

소닉모터스는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 한국카엔라이프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모빌리티 라이프 솔루션 브랜드이다. 고성능 슈퍼카 및 수입차의 판매·정비·튜닝·부품 유통까지 아우르며 글로벌 튜닝 브랜드의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슈퍼카 정비소로서 조현범 회장이 강조하는 ‘하이테크 혁신’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이엔드 차량도 일상처럼’…정비소에 ‘감성’ 입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카페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소닉모터스 도곡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붉은색 람보르기니와 하얀색 포르쉐가 리프트에 걸려있다. 차량 아래에는 정비사가 조용히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울초 리모델링을 마친 소닉모터스 도곡센터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 이곳은 흔히 말하는 카센터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이다. 정비소 한편에는 회사와 협업한 카페 공간이 마련돼 있다. 고객들은 커피를 마시며 하이엔드 브랜드 차량 정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소닉모터스는 현재 강남센터, 도곡센터, 서초BP센터 등 서울 도심 3개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도곡센터는 문화 공간을 결합한 매장으로 주목받는다. 차를 맡기러 오는 고객뿐 아니라 ‘슈퍼카를 경험하러 오는’ 일반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하이엔드 차량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지 않다. 비싸고 희소 가치 있는 차량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소닉모터스는 그런 고객 니즈에서 시작된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시작한 소닉모터스는 지난 2016년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며 “지금은 도곡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두 번째 도약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소닉모터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F&B(식·음료) 사업 등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했다는 데 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차량을



박정희 소닉모터스 대표(오른쪽)와 장성순 소닉모터스 강남센터장.

/차현정 기자

슈퍼카 정비소 ‘소닉모터스’ 3곳 운영 차량 정비 기술 넘어 자동차 경험 나눠 식·음료 사업 등 라이프스타일 결합해 누구나 차량 경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회사의 지향점이 녹아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소닉모터스는 슈퍼카 정비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카페를 도입했다”라며 “도곡동은 ‘카페거리’라고 불리는 입지적 특성도 있으며 커피를 마시며 슈퍼카를 가까이서 보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에겐 일종의 ‘명품’처럼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고객이 맡겨준 신뢰에 책임 다하자’…정비 이상의 응대 철학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 그의 철학은 분명했다. 박대표는 “슈퍼카는 정비 과정에서 부품

을 구하기가 어렵다. 대중적인 브랜드 대비 수급이 어렵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며 “또한 슈퍼카는 부품 가격이나 기술료가 고가이다 보니 정비를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닉모터스는 고객 일정에 맞춰 작업을 조율하고 각 부품을 계약한 거래처를 통해 건별로 직접 수입해 들어온다. 그렇기에 공식 서비스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비사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희소한 슈퍼카를 정비하려면 정밀한 기술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데 국내에 인력을 확보한 곳은 많지 않다.

소닉모터스 정비 기술고문인 장성순 소닉모터스 강남센터장은 슈퍼카 정비 분야에서 30년 넘는 경력을 지닌 1세대 기술자다. 1986년부터 정비를 시작해 수입차만 20년 이상 다뤘은 그는 2003년 소닉모터스 출범 초기부터 함께하며 슈퍼카 전문 정비 인력의 기반을 닦아왔다.

소닉모터스는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정비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엔컴퍼니그룹과 협업을 통해 슈퍼카 브랜드와의 접점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닉모터스의 기술력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회사를 통해 마련한 차량을 정비사들이 먼저 분해해 보고 구조나 특성을 익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테스트 차량은 한국엔컴퍼니그룹과도 연계돼 양사가 함께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비전은 어떤 차를 타고오든 명품을 소유한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고객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신뢰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는 얘기를 자주 한다”라며 “고객이 차량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 마음

과 시간을 우리에게 건넨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걸맞은 정성과 결과로 응답해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정밀한 기술·경험 갖춘 정비인력 보유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와 기술협력
가격·서비스 표준화로 투명한 정보 제공
고객 니즈에 맞는 해답 찾을때 보람 느껴

◆슈퍼카 수입차 정비 표준화 전략 나서

박 대표는 그동안 한정된 영역으로 여겨졌던 슈퍼카 정비 시장을 보다 넓은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정비 비용을 공개하고 차량 관련 정보를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대중들과도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나 모빌리티 기반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고객과의 접점을 확장해 가는 것도 박 대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 중 하나다. 그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부터 성능 향상이나 튜닝, 휠·타이어 교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니즈가 생긴다”라며 “소닉모터스는 세계 톱티어급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매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순 정비소를 넘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소닉모터스의 모회사인 카엔라이프는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군 내 신규 리테일 시장을 지속 개발 중”이라며 “문화 콘텐츠나 F&B를 접목한 매장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판교에 신규 매장을 짓고 있는 중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신사업을 꾸준히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가 F&B 리테일을 매장에 활용하는 이유로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소는 방문 주기가 길어 고객과의 만남이 드문 편이지만 커피나 식사를 즐기 위한 방문이 더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소닉모터스는 타겟층을 확장하고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소닉모터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고객의 정교한 니즈를 해결해 줄 때’로 꼽았다.

그는 “고객의 다양하고 세밀한 니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입소문을 통해 브랜드 신뢰가 쌓일 때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탁구 임종훈-안재현, 세계 1위 꺾고 WTT 미국 스매시 우승
▲방신실, 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역전 우승
/사진 뉴스시스

▲LG 김현수, 14년 연속 올스타 출장…역대 최다·최장 신기록
▲‘불법촬영 혐의 재판’ 축구 황의조, 무적 신분 피해

▲‘이현중 19점 12리바운드’ 한국 농구, 일본 84-69격파…한일전 전승
▲한국 여자배구, VNL 최종전서 프랑스에 완패…잔류 적신회